

「99 건축문화의 해」 선포식 개최

삶의 터전, 문화의 바탕을 슬로건으로



왼쪽부터 이영희, 김규태, 이의구, 이경희, 강석원, 김한근, 신낙균, 윤도근, 엄덕문, 송종석, 김영수 순서임.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광노)는 지난 1월 29일(금) 오후 2시에 서울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99건축문화의 해」선포식을 가졌다. "삶의 터전, 문화의 바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선포식은 건축문화의 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우리협회 이의구회장을 비롯해 신낙균 문화부장관, 이 협 국회문화관광위원장, 김한근 대표집행위원장, 사라토플슨 국제건축가연맹회장 등 많은 국내외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김대중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보내 『건축문화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든 예술과 생활 그리고 과학기술의 총화』라면서 『건축인들은 건축을 통해 우리 문화의 품격과 수준을 한 층 높이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창조적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 건축문화의 해 주요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주요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가 이미지의 세계

올 해 「건축사시험」일자 확정

예비시험은 5월 9일,
자격시험은 9월 5일에

건교부는 지난 2월 3일(수) 99년도 건축사시험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건축사 예비시험은 오는 5월 9일 서울에서 자격시험은 오는 9월 5일 서울, 부산, 광주에서 각각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예비시험의 경우 대학졸업자, 전문대졸업후 2년경력자, 고졸후 4년경력자, 기타 9년경력자 등이며 자격시험은 예비시험합격자 또는 건축분야 기사1급 자격취득후 7년(건축사보는 5년)이상 경

력을 위한 밀레니엄사업(새로운 천년을 위한 건축비전 모색, 밀레니엄 기념조형 조성방안 마련, 건축문화자료관 건립기반 조성) ◇ 한국건축문화의 위상정립을 통한 정체성 및 보편성 확보(한국현대건축100년 특별기획전, 동서양 건축문화 비교 국제심포지엄, 아카시아 국제포럼 개최) ◇건축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건축문화운동 전개(건축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내가 가꾼 우리마을 콘테스트, 600년 문화도시서울 기획전, 지역문화공간 모델개발, 아름다운 도시환경 만들기, 삶과 환경 국제세미나, 건축문화엑스포, 사랑의 집짓기 운동) ◇ 건축문화 자산의 발굴 및 체계화를 통한 관광산업화 추진(전국 건축문화자산 조사 및 체계화, 건축문화자산 정보화, 건축문화기행) 건축문화의 해 전용 인터넷: www.arch99.or.kr

력자, 건축분야 기사2급 자격취득후 9년(건축사보는 7년)이상 경력자 건축분야 기술사자격 취득자,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자로서 5년이상 경력자 등이다. 오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학졸업후 5년, 전문대졸업후 7년, 고교졸업후 10년, 기타 14년이상 등의 건축관련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번 예비시험에 합격할 경우 즉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시행방법은 지난해와 같이 필기 시험의 경우 과목당 40문제, 5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 실기시험은 건축설계 과제 1개를 놓고 360분간 보게 된다.

응시수수료는 예비시험 2만3천원, 자격시험 4만8천원 등 지난해와 같으며 시험시행에 따른 세부일정과 시험장소 등은 2월말에 공고된다.

도시·건축 심포지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파주출판단지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월 14일(목)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황기원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와 조성룡소장(조성룡도시건축연구소)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승효상소장(이로재건축), 민현식교수(한국종합예술학교), 김준성교수(경기대 건축대학원), 김광현교수(서울대 건축과)가 토론에 참여해 출판과 정보를 중심으로 한 성공적인 산업단지의 실현을 위해 출판인들과 건축인들이 한 데 모인 열띤 논의의 마당이 됐다.

'1999 「한국건축가협회상」 발표

「김옥길기념관」 등 7개 작품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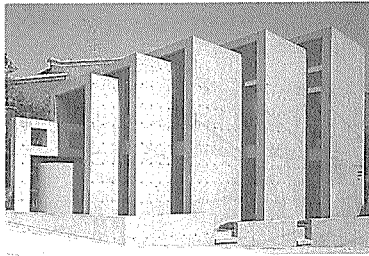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한근)는 지난해 완공된 국내 건축물 가운데 창작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에게 주어지는 「한국건축가협회상」과 매년 한국적 건축미가 뛰어난 작품과 건축가에게 수여되는 「엄덕문 건축상」 그리고 특별상인 「아천건축상」과 「초평건축상」의 각 수상작(자)을 발표했다.

「건축가협회상」에 선정된 작품은 건축가 김인철(아рки움건축)의 '김옥길기념관', 김정철(정림건축)의 '정림신사옥', 김종성(서울건축)의 '아트선재센터', 방철린(인·토건축)의 '하늘마당 II', 손학식(SKM 디자인)의 '오피스콘서트 홀', 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의 '용인솔마당집', 민규암·권혁천(토마건축)+김인한(경희대)의 '한호제' 등 모두 7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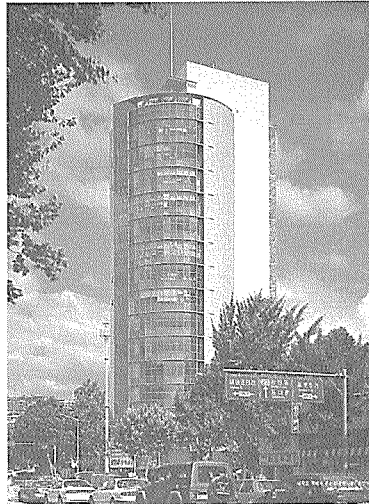
올해로 10회를 맞는 「엄덕문건축상」은 대법원청사(윤승중+변 용)와 아트선재센터(김종성)가, 제12회 「아천건축상」은 김병운(백제예술대)의 '몽죽헌'이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건축발전에 공로가 큰 건축인에게 주어지는 「초평건축상」에 건축가 지 순(간·삼건축)씨가 선정됐다. 한편 건축가협회는 2월 24일(수) 서울 삼성동 소재 포스코센터 서관 4층에서 열릴 정기총회에서 각 수상작(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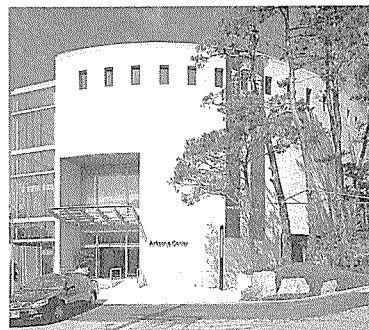
하늘마당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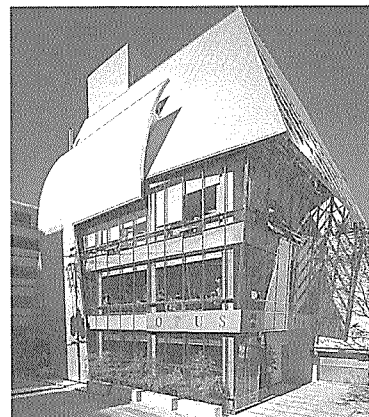
김옥길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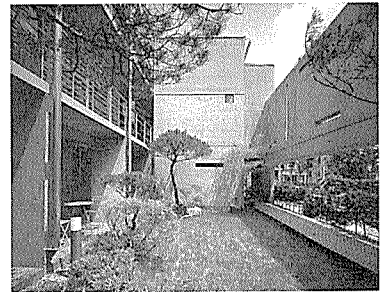
정림신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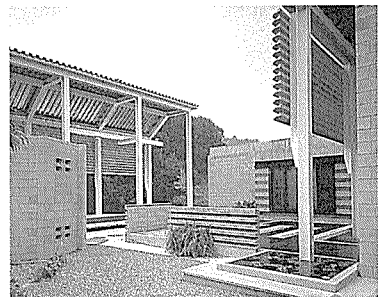
아트선재센터



오피스콘서트홀



용인솔마당집



한호제

제12회 이상건축 해외건축기행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월간 이상건축에서는 제12회 해외건축기행으로 미국 서부해안 지역과 애리조나 사막지역 투어를 마련했다.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질 이번 기행은 라이트의 탈리아신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모던의 산실이기도 하며 최근 프랭크 게리, 모포시스, 에릭 오웬 모스 등 미국의 현대건축을 선도하는 건축가들의 새로운 실험들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월간 이상건축(02-549-5383)

건축가 이일훈, EBS 건축강의

2월 매주 목요일 19:20~20:00

건축가 이일훈(후리건축 대표)씨가 2월 한달동안 매주 목요일에 EBS 교육방송의 '세상보기' 프로에 출연, 건축에 대해 강의한다. '딱딱한 건축이론 강의가 아닌 문화로서의 건축을 전파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힌 강사 이일훈씨는 건축을 비판하되 동료건축가의 위상을 높일 것이며 철저히 지금 이 땅의 주제의식을 소재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테마는 첫째주 '집을 생각하기', 둘째주 '집을 짓기', 셋째주 '집에 살기', 넷째주는 '실제 건축된 자신의 집 이야기'이다.

'99포스코 강구조작품상 공모

2월 28일까지 접수

한국강구조학회가 주관하고 포항종합제철이 후원하는 99포스코강구조작품상의 공모요강이 발표됐다. 강구조기술의 창의력을 배양시키고 철강 이용기술을 개발시킴으로써 우수한 강구조물 건설의 활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 작품상은 3월중에 수상자를 발표하고 4월중에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 대상작품: 1997년 1월 1일~1998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강구조물(교량, 철탑, 해양구조물, 고층 건물, 주택, 특수건축물, 공장 등)
- 시상대상: 대상작품의 설계자(계획 또는 구조), 시공자, 건축주 또는 발주기관
- 시상내용: 금상1점(상패 및 부상 600만원, 해외견학), 은상2점(상패 및 부상 각300만원, 해외견학), 동상(상패 및 부상 각 200만원, 해외견학)
- 시상기준: 작품성이 뛰어난 강구조물,

신강재의 사용 또는 강재 이용기술 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한 강구조물

- 접수기간: 1999년 1월 1일~2월 28일
- 제출자료: 신청서, 기본설계도면(10매이내), 신청작품의 사진(5×7인치 컬러판 3매)
-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910-15 울전빌딩4층 한국강구조학회 사무국 (02-568-7636)

1999 Benedictus Award 후보작 공모

3월 8일까지 접수

유리를 주재료로 사용한 혁신적인 건축물에게 돌아가는 베네딕투스 건축상이 1999년 수상작을 공개 신청받는다. 이 상은 Dupont사에 의해 1993년 창설, 세계건축가협회의 승인을 받고 미국건축가협회의 후원으로 매년 수상작을 선정해 왔으며,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두 분야로 나뉘어져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1994년 1월이후에 완성된 건물로 제한되며 국적의 제한은 없다. 참가 희망자는 프로젝트와 유리재료 사용의 이유를 언급한 영문설명서를 첨부하여 A4크기의 포트폴리오를 오는 3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Timothy Macfarlane(영국), Jean Marc Ibos(프랑스), Tom Mayne(미국) 등이 맡게 되며, 수상자에게는 독일조각가인 Hans Frabel의 작품을 부상으로 수여하는 한편 AIA 컨벤션센터에서 작품전시회를 갖고 건축작품집에 게재, 출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AIA홈페이지인 www.aiaonline.com을 통하거나 뉴욕에 있는 AIA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1735 NewYork Avenue NW, Washington, DC 20006, USA
Tel) 202-626-7446,
Fax) 202-626-7425,
vierras@aia.org

서울건축학교 제2쿼터 공개강좌 프로그램 발표

건축가세미나와 기획연속강좌 등

서울건축학교의 제2쿼터 공개강좌 프로그램 일정이 발표됐다. 이번 공개강좌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펼쳐지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건축가세미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강연자들의 금요강좌,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들뢰즈에 관해서」라는 주제로 기획연속강좌,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영화세미나를 각각 갖는다.

- 건축가세미나: 화요일 저녁 7시 30분
990223: 서구문화와 한국 건축가(김태수, TSK건축)
990302: Philosophy of City (Hiroshi Innami, Ayumi Han, 일본)
990316: Membrane Structure 건축(류춘수, 이공건축)
- 990330: Recent Works(서해림, 힘마건축)

- 금요강좌: 주제 4332/1999 현실과 관점: 전환, 금요일 저녁 7시 30분
990212: 일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이동통신기술 그리고 멀티미디어(강충구, 고려대전파공학과)
- 990219: 윌리엄 모리스에 대해서(박홍규, 영남대 법학과)
- 990226: 포스트모더니즘과 세기말 미술(김홍희, 미술평론가)
- 990305: 오태석 「백강달밤」을 중심으로(구하서, 연극평론가협회장)
- 990326: 건축으로서의 책, 책으로서의 건축(정병규, 정병규출판디자인)

- 기획연속강좌: 들뢰즈에 관해서, 화/금요일 저녁 7시 30분
990205(금): 20세기후반 서구 탈근대적 사상의 궤적- 들뢰즈를 중심으로(박영욱, 고려대 철학과)
- 990209(화): 들뢰즈의 존재론과 의미

- 론- 차이의 반복과 의미의 논리를 중심으로(박영욱)
- 990309(화): 정치경제학 비판과 정신분석학을 넘어-앙티오디푸스(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 990312(금): 노마들로지와 탈주의 정치학(심광현)
- 990319(금): 들뢰즈의 예술론- 감각의 논리와 시네마1-2(심광현)
- 990323(화): 들뢰즈의 라이프니츠 독해와 21세기 사유의 전망(심광현)
- 영화세미나: 영상과 도시공간/진행 조성룡, 최 옥 토요일 오후 2시
- 990213: 발칸반도에서의 지금<올리시스의 시선> 감독/테오 앙겔로 폴로스
- 990220: 안토니오니의 도시 <구름 저편에>, <태양은 외로워> 감독/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 990227: 도시이야기 <리스본 스토리> 감독/빔 벤더스
- 990313: 현재의 미래도시 <알파빌> 감독/장 퍽 도다르
- 990320: 도시의 일상과 공간 <안녕하세요> 감독/오스 야스지로

제17회 서울시 건축상 공모

2월 13일까지 접수

서울시가 주최하고 경향신문사와 서울방송이 후원하는 제17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응모요강이 발표했다.

- 응모대상

- 준공건축물부문(규모와 용도제한 없음)
: 97~98년 기간중 사용(임시사용) 승인된 서울시 소재의 모든 건축물
- 건축물 야간경관 부문(신설)
: 98년 12월 31일 이전 외부 경관조명이 설치된 서울시 소재 모든 건축물

- 작품제출요령

- 응모신청서와 작품제출안내서(서울시 건축지도과 비치)
- 패널2개(90cm×90cm)
준공건축물부문: 건축개요, 전경사진, 도면(평·입·단면도)
건축물야간경관부문: 경관조명개요, 전경사진(주야간 대비), 경관조명 디자인 개념 등
- 작품사진(전경 5"×7")과 작품설명서 20부
- 모형은 필요에 따라 제출가능

- 시상, 전시

- 시상종류: 준공건축물부문(금상1점, 은상2점, 동상4점, 장려상3점), 건축물야간경관부문(금상1점, 은상1점, 동상2점, 장려상2점)
- 시상내용: 상장과 상금(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 전시기간: 99년 5월 11일~5월 17일
- 전시장소: 세종문화회관 전시실

- 접수기간: 99년1월15일~99년2월13일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3707-8253~4)

※준공건축물부문 수상자에 대한 특전: 서울시건축조례 제71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행정처분의 경감, 금상수상 설계자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수상작품 전시시 주요작품을 추가로 전시할 수 있도록 개인 전시공간 별도 마련

스틸하우스교육생 모집

2월 27일까지 신청

한국철강협회 스틸하우스클럽은 99년도 제1차 스틸하우스 구조설계 및 시공교육 실시를 위한 수강생 참가신청을 받는다. 건축사와 구조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3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4일간 구조설계, 시공관리, 간담회

등의 교육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완료 후 수료증을 발급해 주며, 참가비는 5만원이고, 교재, 실습재료, 점심식사 등을 제공한다. 선착순 20명. (02-3441-3852)

설계경기 현상공모

대구등촌초등학교
울산범서초등학교

◇ 대구등촌초등학교

- 용역명: 등촌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 시범학교 건립공사 설계용역
- 시행기관: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
- 응모자격: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 전문설계업 1종이상 면허를 겸유한 업체, 다만, 전기설계업 면허를 보완하기 위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건축설계업체가 되어야 한다.
- 주요내용

-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47, 1051~2번지
- 부지면적: 20,783㎡
- 연면적: 13,358㎡
- 시설내역: 기존 초등학교를 재배치하여 47학급 규모(초등45학급,유치원2학급)의 현대화 재개발 시범학교 건립(1,2학년은 열린교실 수업방식 운용)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0일간
- 총사업비: 3억5천2백10만5천원
- 과업설명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 교부: 99년 2월 9일 14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99년 2월 26일 09:00~17:00
- 입찰일시 및 장소: 99년 3월 26일 11:00 대구동부교육청 대회의실
- 문의: 동부교육청 재무과(053-606-5170~1, 입찰관련), 시설과(053-

606-5180~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안내)

◇ **범서초등학교**

- 용역명: 범서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 설계용역
-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 공모자격: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구비하고 건축사사무실 등록을 필한 자.
- 주요내용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 346번지
 - 대지면적: 20,193㎡
 - 시설규모: 지상4층,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용역기간: 120일간
- 현장설명: 99년 2월 8일 11:00, 울산 강남교육청 대회의실 3층
- 응모신청: 99년 2월 8일 ~2월 12일 17:00
- 작품제출: 99년 3월 31일 ~ 4월 2일 (3일간)
- 문의: 재무담당부서(052-254-1252, 참가신청관련), 시설담당부서(052-254-1264, 기술지침관련)

'99 MBC 인테리어 · 건축 박람회

오는 3월11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종합전시장에서

문화방송이 주최하고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99 MBC 인테리어 · 건축박람회가 오는 3월 11일(목)부터 15일(월)까지 여의도 종합전시장(MBC앞)에서 5일간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총 10만㎡ 규모의 전시장에 인테리어전, 건축자재전, 조명산업전, 조경산업전, 배관기자재전, 부동산분양 및 정보전 등이 다양하게 꾸며진다.(02-789-3727)

전통건조물보존법폐지법률 공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21일 전통건조물보존법폐지법률을 법률 제5,656호로 공포하고 이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통건조물보존법은 전통건조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소유자가 재산권제한,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지정을 꺼려하여 동법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지정된 전통가옥만을 보호하는 제한된 법으로 전략해 제정취지가 퇴색됨에 따라 폐지한다고 밝혔다.

주택 · 건축분야 부조리근절 대책 마련

서울시, 규제위주 법령 정비키로

서울시는 지난 1월 26일 「주택 · 건축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 · 건축분야 부조리의 원인이 규제 위주의 복잡하고 지키기 어려운 규정과 절차에도 있다고 보고 앞으로 각종 법령, 규제의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먼저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해 위법건축물의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불법 용도변경된 옥탑을 당분간 준공처리해 양성화하거나 위법건축물의 준공을 허가해주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규모 필지의 건축기준 완화, 건물 발코니 건폐율 산정 방법 개선 등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법령을 중심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고, 준공검사된 건축물은 바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준공신고제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 증축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건축, 주택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부조리 발생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또한 부조리 발생소지가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건축인·허가 담당구역제를 폐지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점검방법을 100% 전수점검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설계부터 감리, 준공검사까지 한사람이 업무를 담당하던 관행을 없애고 감리건축사가 공사감리를 맡고 준공검사는 행정기관이 임명한 검사원이 대신하는 특별검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품 등의 제공과 관련 형사처벌된 건축사 또는 시공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 제11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북, 건축관련 인터넷 서비스

도내 시 · 군 건축조례 제공

전라북도는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과 허용, 각 지구안의 대지면적과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선 규정 등 도와 시 · 군의 건축관련 조례내용을 지난 1월 27일부터 인터넷에 올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진동공사 신고기준 완화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의 시·도지사에 대한 사전신고 대상을 종전 연건평 3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해체관련 공사에서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지난달 25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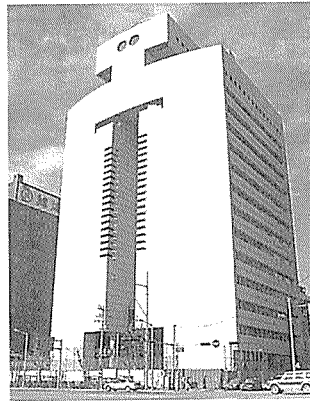
책임감리 공공공사 대상 완화

건기법시행령중개정령 공포

건교부는 지난 1월 21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공사비 1백억원 미만 공사는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고등학교졸업자도 졸업 후 18년 이상의 실무경력만 있으면 특급기술자와 특급감리원이 될 수 있다. ◇건축사 등 건설분야 전문가에 한해서만 가능케 했던 감리회사 대표자의 자격제한 폐지 ◇건설기술자와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훈련 미이수자, 교육비 미부담업체,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미보고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경감(각각 50%)

마리오 보타, 교보생명빌딩 설계

부산과 대구사옥 설계



부산사옥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교보생명의 의뢰를 받아 부산과 대구에 교보생명사옥을 설계, 그 형체가 드러나고 있다. 주로 교회나 미술관 등의 저층 건물을 설계해 온 마리오 보타는 공사중인 두건물에서 매스 일부를 움푹 파 음영을 강조하는 등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오피스빌딩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부산사옥은 국제여객터미널이 보이는 부산역주변에 위치, 바다를 향해하는 장군의 형상과 비슷하며, 대구사옥은 동성로에 위치, 가운데 오픈스페이스를 두고 그 가장자리를 둘러 오피스공간이 펼쳐지는 평면을 갖고 있다. 올 연말 준공될 예정이다.

신간안내

한국의 명원 소재원
제로텍스트
건축은 반역이다
한국의 고건축 제20호
북한문화재해설집 II -사찰건축편
건축설계이야기
AutoCAD R14 기초와 실습

◇ 한국의 명원 소재원

한국정원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소재원(瀟灑園)의 역사와 형태, 다소 현세적이라 할 수 있는 조영자의 자연관, 건축개념 그리고 소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화, 생활들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소재원은 조선 중종대에 처사 양산보가 조영한 일종의 별서정원으로 세상을 등지고 살기 위해 정자를 짓고 못을 파고 나무를 심어 완성한 곳으로 당대의 문인들이 사상, 학문을 교류하는 학문과 풍류의 장소로 이를 중심으로 「누정가단」을 형성한 바 있다. 이 책은 소재원 창설당시 사회·역사적사건들이 소재원의 조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소재원의 조영자인 양산보의 자연관은 소재원 조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소재원의 옛모습을 묘사하여 제작된 「소재원도(瀟灑園圖)」와 소재원의 계획개념과 공간체험들을 시로 표현한 「소재원48영(瀟灑園四十八詠)」, 그리고 여러 실증자료들을 통해 소재원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지와 현재 소재원의 모습



소재원

THE MOST BEAUTIFUL GARDEN IN KOREA, SOE-WON

과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 보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소셜원 감상을 구성과 형태분석에 얽매이기보다 소셜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각적인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읽도록 하고 있다. 천득염지음/246쪽/1만4천원/도서출판 발언(02-929-3546)펴냄

◇ 제로텍스트

건축에 후기구조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페이퍼 아키텍트 라스 르렵의 설계이론서가 출간됐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추리히, 베를린, 스톡홀름 등지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는 라스 르렵은 같은 후기구조주의자로 분류되고 언어와 건축을 엮으려 한다는 측면에서 종종 피터 아이젠만과 비교되곤 하는데 그의 일련의 작업은 건축가와 건축, 사용자간의 관계를 재조명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에서 작가와 텍스트, 독자의 관계를 건축에 적용하여, 건축가가 건축물에 의도한 주제를 사용자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르렵은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는 건축가와 사용자 간의 틈을 줄이려 한다. 프로젝트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해체와 재구축을 거듭하면서 생기게 되는 변형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이를 이야기하면서 사용자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려 하는 그의 글과 드로잉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이 책은 MIT출판사에서 1987년에 출판한 라스 르렵의 『Planned Assaults』을 번역한 것으로, 무가족 주택, 사랑/주택, 텍사스 제로의 3개의 계획안을 통해 일가족 주택과 그 부지와 프로그램을 통해 실재적으로나 허구적으로 표상되어지는 건축적 교조와 사회적 관습에 계획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또한 건축적일 뿐만 아니라 시적, 철학적, 정신분석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의 영감들을 통해 독자들은 건축의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며, 최근의 건축적 사고와 실천의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르렵의 일련의 작업에 대한 피터 아이젠만의 비평도 함께 실고 있다. 세기말의 혼란스러움속에서도 건축의 이론화 작업에 꾸준히 매진하는 건축인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서술해 나가야 하는가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좋은 책이 될 것이다.

라스 르렵 지음/ 이강현 옮김/120쪽/1만2천원/도서출판 발언 (02-929-3546)펴냄

라스르렵 제로텍스트 Text as Zero



◇ 건축은 반역이다

이 책은 20세기의 마지막에 서서 다가오는 뉴 밀레니엄을 기대하며, 또한 99년 '건축문화의 해'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주)서울포럼에서 기획한 「인물과 건축 시리즈」의 첫권으로 발간됐다.

아웃사이더로 자라 서울시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건축가이자 실천적 지식인인 저자 함인선의 성장에세이를 골간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저자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일러스트와 사진자료를 통해 건축구조의 미학과 원리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나는 행복하면 불행하다(건축가로서의 나의 투쟁), 건물도 날선해지고 싶다(밖에서 보는 건축이야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학은 외롭다(저자의 경험담과 단상), 서울 토박이인 나는 왜 서울에서 표류하는가(건축과 도시에 대한 이야기)로 나뉘어 구성됐다. 건축가 함인선이 바라보는 건강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적



시각을 통해 군더더기와 장식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 기술의 극한을 추구하는 실험성, 최소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낚는 철골구조에 능한 실용주의 그리고 철골의 파워와 유리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간결 미학 등 저자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함인선 지음/232쪽/8천원/(주)서울포럼(02-514-9838)펴냄

◇ 한국의 고건축 제20호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 미술공예연구실에서 건축문화재 기록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 건축문화재의 정밀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학술연구보고서로 건축양식, 실측자료해설, 사진 및 실측도면 등을 수록한 『한국의 고건축 제20호』가 출간됐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청평사 회전문(보물 제164호)과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정혜사 대웅전(보물 제804호)이 실린 이 보고서는 정밀실측 도면 90매, 상세사진 152매, 그리고 <정혜사대웅전중수상량문(定慧寺大雄殿重修上樑文)>과 같은 관계 자료를 풍부히 수록하고 있어 한국 전통건축의 학술연구 진흥 및 보급, 선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권말에 영문요약을 수록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등에 한국전통건축을 소개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청평사는 고려시대 이자현이 문수원(文殊院)을 지으면서 거사불교(居士佛敎)의 중심지가 되고 조선시대에 고승 보우(普雨)에 의해 지금의 사세를 갖추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유서깊은 사찰이며, 회전문은 강릉 객사문, 도갑사 해탈문 등과 비견되는 조선시대 초기의 건축물로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건물이다. 정혜사는 고려시대에 선원(禪院)으로 정착된 사찰로써, 대웅전은 임란이후 조선중기에 건립되어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이어지는 기구법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02-735-5281 교269) 문의

◇ 북한문화재해설집 II -사찰건축편

이 책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북한소재문화재를 분야별로 상세히 소개하는 해설집시리즈로 97년 해설집 I - 석조문화재편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됐다. 평양특별시 3건, 개성직할시 3건, 황해남북도 10건, 강원도 11건, 평안남북도 21건, 양강도 1건, 함경남북도 12건 등 총 61건의 현존 북한 사찰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각 사찰에 대한 해설, 관계문헌목록 외에도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생생한 컬러사진 200매, 흑백사진 47매, 도면 165매 등 수집 가능한 자료가 망라되어 있어 해방이후 우리 손에 의해 최초로 북한 사찰관계 사진과 도면자료가 집대성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북한지역에는 최초의 다포계 건물인 연탄심원사 보광전, 성불사 웅진전 등의 고려시대의 건축물과 북한 최대의 사찰인 묘향산 보현사, 구리기둥에 의지하여 축조한 금강산 보덕암, 자연바위굴을 이용하여 축조한 금강암굴, 독특한 육각형 평면의 금강산 정양사 약사전, 사공(斜拱)이란 특이한 공포형식을 가진 현존 유일의 예인 안국사 대웅보전 등 귀중한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사찰건축을 포함한 전통사찰건축에 대한 시대적, 지역적 특성을 한층 심도있게 연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전통건축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일 후 북한소재 사찰건축이 복원, 보존 등에 대한 귀중한 일차적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목조건축편, 고고미술편, 민속편, 천연기념물편 등을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02-737-6685)문의

◇ 건축설계이야기

건축전문인이 아닌 일반시민도 건축에 대한 상식을 갖고 있어야 상식이하의 건축을 억제하고 예술작품에는 이르지 못해도 건강한 환경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건축을 만들 수 있다는 (주)정림건축에서 30년 동안 설계업무를 맡아온 권도웅씨가 심오한 건축철학이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실제 필요한 내용들을 엮은 건축주와 실무자를 위한 『건축설계이야기』가 출간됐다. 건축가는 예술과 기술을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이상적인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게 되며, 작품의 질은 건축가의 능력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건축가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고, 건축주의 건축에 대한 이해 정도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예비건축주로서 상식이하의 전문인을 만났을 때 최소한 상식 이상의 건축으로 질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일반시민이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점에서 이 책의 구성이 시작됐다. 계단의 철판에 그림을 그려 넣는다든지, 난간 고정은 어떻게 하면 좋다든지하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것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등 크게 설계를 시작하기 전과 건축설계에서 지나치기 쉬운 부분들로 구성해 일반인들은 물론, 초보 설계자,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도웅 지음/264쪽/1만원/기문당(02-295-6171)퍼냄

건축주와 실무자를 위한
건축설계이야기
권도웅 지음

권도웅

◇ AutoCAD R14 기초와 실습

현재 건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CAD 프로그램은 주로 AutoCAD이다.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AutoCAD R12와 AutoCAD R14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R13을 사용하는 사무실은 드물다. 이책은 최신 버전인 AutoCAD R 14를 기본으로 하여 이를 다루는 법을 아주 쉽게, 혼자 독학할 수도 있게 쓰여졌다. 양재호 맹광태 구정희 공저/326쪽/1만2천원/기문당 퍼냄

